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702-4301

山地資源化를 위한 討論會

— 山林施策에 信賴性 回復과

採算性 맞도록 投資與件 造成을 —



산지 자원화를 위한 토론회 광경

山林廳은 지난 4.20 世宗文化會館에서 尹勤煥 農林水産部長官과 鄭採鎭 山林廳長 주재하에 學界, 研究機關, 山主, 篤林家, 山林組合, 在野 林業人, 言論人, 開聯團體 등 各界各層의 人士들 37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山地資源化를 위한 大 討論會를 가졌다.

이 討論會는 治山綠化의 評價, 새 山林政策의 推進方向과 政策轉換을 위한 法令 制度 改善 등 必要한 各界各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現場의 林業技能人에 이르기까지 各界 30 餘名の 演士들이 열띤 討論으로 장장 6시간에 걸쳐 오후 8시까지 진지하게 進行되었다.

(관련기사 別項)

山林建設은 先進祖國의 지름길

會長 韓 榮 錫

지구상의 林木蓄積量은 3千7 백억입방 m 가량으로 한사람당 70 입방 m 정도의 樹林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온난한 좋은 기후에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임에도 임목축적이 2억 입방 m 도 못되어 국민 1인당 5 입방 m 미만의 초라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심성이나 체력이 늙름하게 자랄 수가 없다.

우리에 비해 선진국들의 수림환경은 어떠한가. 우리와 같이 협소하고 인구가 과밀한 국가도 국민 1인당 20 - 30 입방 m 에 이르며 국토가 넓은 나라는 50 - 1 백입방 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성이 정직하고 체력이 우세하다.

왜 우리는 산림을 융성하게 키워오지를 못하였을까. 역대 위정자들의 산림의식 부족이요, 국민들이 나무의 성장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으로 거름주기, 덩굴제거, 除伐, 間伐, 가지치기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무가 얇히고 설켜 자라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침식되어 산사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 산림부실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국토의 3분의2가 산림인데도 목재 펄프를 방대히 수입하고 있고 치수사업에 골몰하며 旱水災가 연년이 고난을 주고 있는 바 이에 의한 소모재화는 연간 2 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작년의 참혹한 수해도 따지고 보면 산림부실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산림을 융성하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의 임목축적을 전임야 ha 당으로 보면 30 입방 m 이나 절벌을 기하여 1년에 1 입방 m 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열성적으로 산림을 건설해 나가고 계속하여 절벌을 기하면 2.5 입방 m 이상의 축적증가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축적이 ha 당 1 백입방 m 이상에 이르게 되면 산림에 내리는 비를 절반가량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지표직류에 의한 홍수를 막을 수 있고 산림의 토사유출이 줄어들어 하천바닥이 깊어지므로 배수가 잘 되며 사시사철 좋은 수자원을 흥풍없이 흐르게 할 수 있다.

산림건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제조건으로 산간오지에 사통팔달의 도로망 개발과 林道를 개발해 나가야 하며 임업기계화로 경제임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을 질서있게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림경영관리기구를 통합해야 하며 시대에 맞는 산림법 개정과 산림조합을 山主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 농수협 등과 같이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국민이 세습임업을 할 수 있도록 증여 상속과정에서 재산권 보전에 위축을 받지않는 산림세제개선, 산림채해 공제제도 수립과 법정제한림의 보상 또는 施業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중요한것은 사유림 경영이 장기저소득이므로 제도금융의 장기성 예금이자 정도는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익부족을 보전시켜주는 施業費보조를 과감히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사업을 시행중으로 금년이 1차년의 해이다. 이 계획에는 시대가 요망하는 산림상과 산지자원화를 향한 대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림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량과 국가재정계획도 부족하여 우리나라 산림을 약진 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선진국들의 國家 산림투자를 보면 울울창창한 산림을 이루어 놓고도 산림면적이 국토의 30% 이하인 나라들은 대개 GNP의 0.2% 이상 (서독은 0.25% 이상) 40% 이상의 나라들은 0.3%를 투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산림사정으로 보아서는 0.5% 이상이 소망되나 0.3% 가까이는 투자가 있어야 산림이 올바르게 성장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6공화국 새 정부는 산림의 중대성을 직시하여 재경당국의 주도하에 산림당국과 산림연관부처 경제연구기관과 사회 학계 산림경영 현업자들을 망라한 산림경영 관리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임정을 창출하고 산림기관의 통합으로 산림부 또는 산림환경부를 창설하여 국민이 산림을 숭상하며 활기있는 산림경영으로 장엄한 산림국가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를 바란다.

‘88 國民 植樹 成功的으로 마무리

4 만 8 천 헥타에 1 억 천 8 백 만 그루 심어

- 勞動力 不足이 問題, 機械化切實 -

山林廳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을 국민식수 기간으로 정하고 범국민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한 결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조림인부 확보에 어려움은 많았으나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년도 조림계획 48천 헥타에 118백만그루를 차질없이 적기에 조림 완료하였다.

산림청은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첫해인 금년 국민식수 기간동안 전국의 시·도·군 및 영림서에 국민식수 상황실 792 개소를 설치하고 국민식수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경제림 조성과 국토와 생활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88 올림픽대비 환경조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노동인구의 고령화, 부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조림인부 확보 및 작업능률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나마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험준한 산지에서의 작업을 기피까지 하고 있어 앞으로의 조림사업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本會 事務室 移轉관계로 今月 會報 4.25日字로

지연 발행 하였습니다.

山林事業 有功者에 褒賞

林東弼, 權五振, 金命源, 최두런氏에 産業勳褒章

政府는 第43回 植木日을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히 산림을 잘 가꾸어온 篤林家 6名을 비롯 山林組合 2名, 公務員 2名을 選拔하여 勳章과 大統領表彰 및 國務總理 表彰을 각각 授與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이는 지난 4.4 山林廳에서 鄭塚鎭 廳長에 의하여 傳授되었는데 模範篤林家 林東弼 (本會 江原道 支部長) 氏에겐 鐵塔産業勳章이 法人篤林家인 權五振 (西海開發株 代表 本會 理事) 氏에겐 錫塔産業勳章이, 優秀篤林家이며 養苗協會 會長인 金命源氏에겐 産業褒章이 授與되었으며 大統領 表彰에는 本會 副會長이며 大成炭座株 社長인 金文根氏와 山聯中央會 洪淳吉 理事가, 國務總理 表彰에는 自營篤林家인 金完圭氏, 閔丙壽, 昇州山林組合長 姜大日氏가 受賞하였다.

이밖에도 公務員으로서는 全北道 營林課長 崔두런씨에게 勤政褒章이, 鄭聖鎬 仁川市 錄地 課長 에겐 大統領 表彰이 授與되었다.

模範篤林家 3名 새로 誕生

篤林家 계속 發掘, 參與 促求

山林廳은 금년도에 새로운 模範篤林家로 4名을 選拔하여 오는 4.29 認定書를 交付할 計劃이다.

이는 篤林家를 育成하는 方針에 따라 “篤林家 育成 要綱”의 심사기준에 의거 매년 山林廳長이 模範인 山林經營人을 選拔하여 격려하고 山林施業上에 여러 惠擇을 부여하고 있는 制度이며, 새로운 篤林家를 계속 발굴해 나갈 方針인데 이번에 새로 認定받게 될 模範篤林家는 다음과 같다.

도 별	성 명	산 림 소 재 지	산림면적	비 고
강 원	한승룡 (67)	황성군 둔내면 삼교리 산 27 외 9 필	238 ha	전원주시 상공회의소장
강 원	문상익 (58)	춘성군 동면 감정리 산 78 외 14 필	351 ha	변호사 본회이사
강 원	강호만 (49)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 산 75-1 외 14 필	466 ha	미행수산 선박대표

山地資源化를 위한
討論會 主要骨字 拔萃

- 일 시 : '88. 4.20 14:00 ~ 20: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석자 : 370명 (발표자 : 22명)

〈 主要內容 拔萃 〉

- 국유림 조립대부 성공지는 무상양여 한다는 분수 계약을 '76년부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니 무상양여 제도 부활
- 산림자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산림예산은 연간 1,500억원이상 확보 (GNP 1% 수준)
 - 산림개발기금 500억 조속 조성과 이자율 5.5%는 고율이니 3% 이하로 인하 (산림소득 4%, 은행이자 11%)
 -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주는 당대에는 소득이 없으니 산림투자를 위해 각종 세제 전면 감면 (상속, 증여, 법인세등)
- 산림조합은 고정수입이 없어 운영비 조달에 전력하고 있으니 조합을 산주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유림 개발 추진주체로 육성
- 임업기계화 촉진과 산촌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능인 육성
- 산지의 초지조성은 축산진흥 시책상 필요하나 각종 규제법규가 많아 조성이 어려우니 산림법에 통합 산림청에서 관장
- 산주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으로 입목 선매 제도 마련
- 국영 보험제도와 산림재해 보상제도를 마련 조성자원 위험 부담 해소
- 방치산림의 경영을 위해 산림개발 공사설립하고 물세, 공기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산지 투자재원으로 활용
-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사유림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 국유림과 같이 자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기능보강
-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은 새마을 공장에 준한 세제혜택 부여
- 임지는 나무, 맑은 공기, 물등을 생산하는 공장 개념으로 보아야지 토지재산으로 봐서는 안 됨.
- 시업제한 임지는 국유림과 교환, 국가매입 또는 보상방안 강구
- 산촌지역의 농촌지도소를 산촌지도소로 개편 임업기술지도 담당 유도
- 산지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묘지제도 개선 대책 강구

- 정부에서 인정한 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산림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산주가 알뜰하게 가꾸어 놓은 산림을 공익기능을 이유로 사업제한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정부에서 보상 또는 보조지원 (공익적 기능이 경제적 기능의 26 배)
- 산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부채산림은 중과세하여 투기억제
- 조림투자비 절감과 노동력 감소에 대비 인공조림보다 천연림보육에 관심 집중
- 산지자원화를 위해서는 산림경영도 중요하지만 산촌주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생활여건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 산지의 다목적 개발로 농산촌 소득증대책 강구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외계적정 도입 방안
- 일선 산림행정기구 강화와 산림공무원의 자질향상
- 산지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감안 보전과 이용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
- 임도시설 확충과 정부 보조 확대
- 임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량품종 개발과 기술혁신
- 초중고교 교과서에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 청소년 인식 제고
- 중공의 공업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림피해 (공해, 산성우등) 예방을 위해 중공과의 국제외교강화
- 산지 장기이용 계획 수립 등
- 토론내용 검토후 실천가능한 것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

헝사지는 입체

산지 제초제 탄생!
 헝사지는입체는 조림목의 생장을 해치는
 잡관목을 고살시키는 산림용 제초제입니다.

헝사지는은 잡관목을 고살시키지만 침엽수에는 안전합니다.

■ 사용적기

- 봄철해빙후(3월 중순~4월 중순경)토양수분이 많으며 지표식생이 없을 때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사용방법

- 지존(地層): 처리지역의 잡관목이나 산야초를 그대로 둔 채, ha (3천평)당 헝사지는입체 100kg 을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하예(下刈): 침엽수 조림목 주위에 ha당 헝사지는 입체 50kg을 골고루 살포.
- 소나무천연허중갱신지: ha 당 헝사지는입체 50kg을 골고루 살포.
- ★ 처리지역에 낙엽 등 피복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곳은 약제 처리 전 피복물을 제거한 후 살포.

第一化學工業(株) Tel. 555-0471

休養林 造成으로 國民레저 需要充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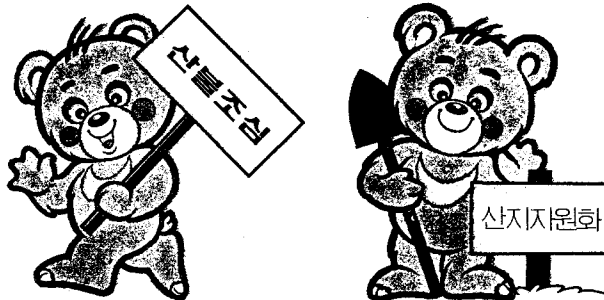
올해에 4개소, 97년까지 60개소에 특수시설

山林廳은 國民「레저」需要가 增大됨에 따라 山林內에 休養施設을 造成하여 休息空間으로 提供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 및 情緒涵養에 寄與함과 아울러 山主의 所得向上을 圖謀하는데 기여키로 하였다.

山林廳은 休養林의 機能과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都市民들이 손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 山水景觀이 秀麗하고 休養施設을 設置함에 適合한 山林과 都市近郊에 位置하여 交通이 便利한 山林을 選定 造成키로 하였으며 '88年度에 優先 國·公林을 對象으로 道에 2個所, 營林署에 2個所 등 4個所에 예정지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시설인 駐車場, 炊事施設, 案内板, 給水施設, 化粧室, 쓰레기통, 散策路, 잔디밭, 野營場 등을 施設키로 推進中에 있다. 또 漸次 自然休養林 利用者들에게 便益을 줄 수 있는 特殊施設(宿泊施設, 스키場, 양어場, 鳥獸飼育場, 山果樹園)로 擴大하여 '97年度까지 總 60個所를 自然 休養林으로 造成하므로서 山林으로부터 間接的인 所得增大는 勿論 國民保健 向上등에 寄與할 方針인데 우선 올해에

休養林 造成 對象地는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100 ha
-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761 ha
- 중부 영림서 관내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563 ha
- 동부 영림서 관내 명주군 성산면 어흘리 1,633 ha 으로 總 4個所에 4,057 ha에 이른다.



山林愛護象徵動物마스코트

조그만한 所願

模範篤林家 李 圭 誨

지난 해 11월 어느 날 午後에 편백 4萬株를 山에다 다 심고 좀 느슨해진 마음으로 학교 職員들과 소주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젊은 職員이 「校長 先生님! 지금 그 나무를 심어서 언제 이문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하는 말에 나는 그저 웃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다. 그렇다! 지금 심은 그 편백 나무가 재목으로 쓰이게 되려면 앞으로 4, 50년은 걸려야 한다. 내 나이가 지금 63歲이니까 100歲 정도나 되어야 오늘 심은 나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요즈음 계산 빠른 젊은이들로서는 당연한 設問提起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요즈음 젊은 世代들의 小我的 利己心과 顯時的 利益觀을 본다.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반드시 可視的인 利益의 열매를 보기 爲한 結果豫測的 行爲가 아니다. 나는 40餘年間 나무를 심고 山을 가꾸어 오는 동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그 自体에서 生의 보람을 느끼고 山을 가꾸는 그 自体가 無意識中에 行해지는 呼吸作用처럼 내 혼신의 中心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라는 나무를 보면 손보고 싶고 즐거운 것이 내 취향인 것이다.

解放前 日本에서 修學을 하고 倭政末에 日徵兵 一期生으로 召集되어 日本에서 解放을 맞았다. 解放되고 一週日만에 故鄉인 慶南 山淸에 돌아와서 처음 着眼한 것이 山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産業이 농업에 依存하고 있었고 농토는 좁아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自立할 수 있는 길은 國土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는 山을 利用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 가을부터 南山 밑 山麓 5ha를 사들여 나무 심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겨울까지 판 구덩이가 2,500개에 이르렀다. 이듬해 봄에 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그 해 여름에 (1946年) 뜻하지 않게 ‘호열자’ (코레라)란 무서운 傳染病이 퍼져 아버지 (당시 64세)께서 世上을 뜨시고, 연이어 兄님, 형수, 삼촌과 사촌, 나의 妻등 온 가족이 앉아서 苦生을 했을뿐 아니라, 몸이 성한 나도 집안에 감금당해서 감옥 아닌 연금 生活을 했다. 50日만에 가 본 造林地는 荒廢되어 있었다. 苗木은 보이지 않고 雜草가 무성하게 땅을 덮고 있었다. 나는 이 날부터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정리할 겨를도 갖지 못한채 林地의 復舊作業에 몰두하기 始作했다. 모처럼 始作한 나의 꿈을 여기에서 좌절해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林地는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1. 教壇에의 첫걸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果樹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나에게 故鄉 國民學校 校長先生님으로부터 學校 教師로 나와 줄것을 권유해 온 것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學校의 位置가 우리 집과

山の中間에 있는點, 그리고學校에서 나오는糞尿를肥料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計算에서 그勸誘에應하기로 하였다. 師範學校 아닌商業學校出身人 내가當時人力資源不足으로苦戰하던教育界에촉탁교사로採用되었던 것이다. 이것이因緣이 되어平生을敎職에 몸담게 되어停年退任을一年餘 앞두고 있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造林에關心을 갖게 된데에는 내가成長한 곳이山間農村인 탓도 있겠지만國民學校時節의恩師金海贊先生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先生님은國民學校在學中 나에게溫室擔當을 시켜 주시며 나에게 이分野에對한特別하신關心을 쏟아 주셨고 자신이 즐겨 보시던「果樹와園芸」란日本語로 된 책을繕物로 주셔서 그 책을 읽으며果樹와山林에對한基礎知識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中學校在學時節放學때가 되면先生님을 만나 뵈을 수 있어 그때마다山林과園芸에對한 지도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契機가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나는 그때 우리나라의山林中 낮은 곳은 모두 밤나무를 심어서 이태리와 같이 밤의特産國이 되어서外貨를 벌여自立을 하고 높은 곳은 모두經濟樹種으로林業富國을 이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2. 造林에의 꿈

다음 해 1947年 1月, 같은郡內이긴 하나他面인丹溪國民學校로轉勤發令을 받았다. 學校를 그만 두고造林業에만專念할까 했으나當時社會가 어지럽고兄弟間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避難을 하기에다容易할 수 있다는兄의 말을 좇아經營하던山을 버리고新任地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5年半을勤務하는 동안 뜻에 맨 취향을 버릴 수가 없어校內植樹, 苗圃場運營等の特別活動指導에 발벗고 나섰다. 6.25后 任地를 옮겨가는 곳마다 나무 심고 가꾸기에 혼신의 힘과精誠을 다했다. 校監으로昇進되어河東郡玉寶面가중國民學校에서勤務하던中 5.16軍事革命을 맞이하였다. 革命政府에서는 18學級以下인學校校監을敎師로降等을 시키고 있었다. 나도 18學級以下學校校監으로서敎師로降等되어 이 곳花開面花開國民學校로轉勤이 되었다. 이 곳花開面은全南과境界를 이루는河東郡과最北端에位置한地域으로蟾津江銀魚로 이름난 곳이고작설차의特產地이며亞字房으로有名한七佛庵이 자리잡은 곳일 뿐 아니라全國 12大本山인雙溪寺가 있는 곳이다. 全体面積의 90%以上이山地로 뒤덮여 있는智異山山麓에 자리잡은 고장이다.

當時花開國民學校는林産研究學校로指定되어苗圃場과 표고버섯栽培를示範課題로 하고 있었다. 새벽에起床하여苗圃場과 표고버섯栽培場을 둘러보는 것으로日課를始作하여 저녁때 이 곳을 둘러 보는 것으로 하루日課를 마치는 것으로 나의日課를 삼았다. 곧 다시校監으로원상回復되어 8年間 이學校에서勤務하는 동안을只今回顧해 봐도 그 때 나이도 젊었거니와 무척이나熱誠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곳 우리花開面은 옛부터 감, 밤의特產地이나樹種이 모두經濟性이 적은在來種이어서樹種更新을 해야收益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1963年부터苗圃場엔 밤, 감, 苗木을 주로育苗

했고 地域住民中 指導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들을 모아 每年 接木 教育을 實施했고 優良 接穗 貯藏法과 아울러 貯藏接穗를 無償으로 나눠 주어서 優良品種補給의 畚을 조성했다. 그러다가 1965년부터는 나의 示範栗林造成林野를 10 町步 買入하여 밤나무 造林을 始作했다.

3. 成就의 기쁨

1968年 校長으로 昇進되어 面內 旺成校 勤務 8年間은 學校 運動場 울이 높아 먼곳에도 잘 보이도록 울타리에 크게 “우리의 살길은 산에서 찾자”라고 써부쳐 놓고 地域住民에게 造林意慾을 鼓吹하는 등 참으로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當時는 教師들에게 僻地學校 惠澤도 없는 時期였으나 1968年 가을에 學生과 教師들이 주워 모은 알밤 4가마를 學校 實習地에 심어 苗木을 2年만에 接穗하여 每年 卒業生들에게 나누어 주고 學校 앞에 學校林 9ha를 마련해서 3,500株의 밤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學校 周圍 1,500坪의 부지를 사들여서 개간하여 茶나무 3,000株를 심고 감나무도 심었다. 70년부터 政府에서 栗林造成을 獎勵하고 林業에 重點的으로 關心을 쏟기 始作할 때는 참으로 기뻐다. 내가 생각하던 “조그마한 所願”이 이제야 그대로 되는구나 생각하니 學校의 일이나 個人의 林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더없이 기쁘고 고된줄을 몰랐다. 土曜日이나 日曜日, 나의 산에 가서 돌아올 때는 8, 9 km의 비탈길을 걸거나 自轉車로 밤중에 다녀도 被勞를 몰랐다.

60年代 中半, 이 곳 山값은 너무도 헐값이었다. 비록 오지이기는 하나 ‘파랑새’ 담배 한 가지에 山 한평을 살 수 있을 정도이니 그 때의 時勢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산을 산다고 하니가 산을 팔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산을 사들이기 始作하면서 부터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 이래저래 사 모은 것이 지금의 山 350 町이 되었던 것이다.

造林에는 참으로 많은 人力이 들었다. 그러나 그 때는 人力이 남아 둘 程度였고 勞賃이 헐해서 이런 面에는 별 애로 없이 造林事業을 할 수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記憶이 있다. 每年 周圍 부락민들이 나의 산에서 나와 함께 植木을 하는 동안 男女老少가 모두 친해졌다. 그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學校長이 나무만 심으면 비가 온다.」 그 말은 때가 비가 올 때여서 이지만 심어만 놓으면 活着率 90%는 언제나 自信 있었다. 그러다가 80年 以後 두번 심한 한발로 活着率 80%가 未達일 뻔한 적도 있었다. 일찍 심은 落葉松은 벌써 기둥감이 되었고 잣나무는 벌써 잣이 달리기 始作하니 산에만 가면 언제나 기쁘기만 하다. 天然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고 國家의 施策은 나의 意圖를 도와 三者가 符合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거칠 것이 없다. 200ha 團地에 4km의 林道가 國家補助로 開通되었으며 20餘年前만 해도 山불 나는 것이 年例行事처럼 됐으나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政府의 配慮 德擇이며 國民의 意識이 向上된 탓 이리라 생각된다.

4. 永遠한 花開 사람되어

나는 이 곳 山골에 와서 이 곳에서 28年間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즐겁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智異山 저쪽 넘어에 故郷을 둔 내가 이 곳에 와서 勳褒章 세 번을 받았다. 常綠樹 教員 山林廳長 表彰, 그리고 새마을 勳章 協同章이 모두 그것이다. 나는 나에게 이와 같은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게 해 준 이 고장을 떠날 수 없다. 나는 1961年 以來 花開面內 國民學校 4個校를 거치면서 山골 구석구석에 所望을 심으면서 살아왔다. 1977年 11月 새마을 勳章 協同章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어디 榮轉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을 때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榮轉일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 곳에서 조그만 報答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조그만 所望이니 餘生을 山の 나무와 더불어 말하고 살고싶습니다。」 하고 分明하게 말했다.

내년 8月末이면 나는 教職生活에서 停年退任을 하게 된다. 나는 무척이나 運이 좋은 사람이라고 自負한다. 教職과 山林育成은 둘 다 이가 맡물려 돌아가는 그야말로 보람되고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이 좋은 일들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은 普通 좋은 運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或 사람들은 停年을 業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나 나는 새로운 段階로의 도약이라고 느껴진다. 그동안 學校일 때문에 자주 돌보지 못한 山을 마음껏 돌볼 수 있고 마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間伐도 해야 된다. 今年에 해야 할 일은 지난해에 심은 편백의 肥培管理이다. 내년에는 退任의 記念으로 또 나무를 심을 것이다. 심을 樹種은 아직 決定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所願을 말하라면 지금의 젊은 世代들이나 자라나는 世代들이 西洋의 어느 哲人이 말했다는 「내일 地球가 滅亡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무를 심을 것이다。」고 한 말의 뜻을 하루라도 빨리 터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永遠한 花開 사람이다.

외용진통소염제
바이겔 크림



“Indomethacin 의 강력한 Prostaglandin
합성 억제작용으로 인한 소염·진통 효과는
Piroxicam 이나 Naproxen 제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草堂藥品工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종로구 종로5가 36-1 전화 : 741-1540, 743-6161/2
출장소 : 부산 (051) 66-3747 대전 (042) 253-8580
대구 (053) 756-1833 전주 (0652) 75-8064
마산 (0551) 43-1923 광주 (062) 232-0701
원주 (0371) 42-8204

本會 事務室 移轉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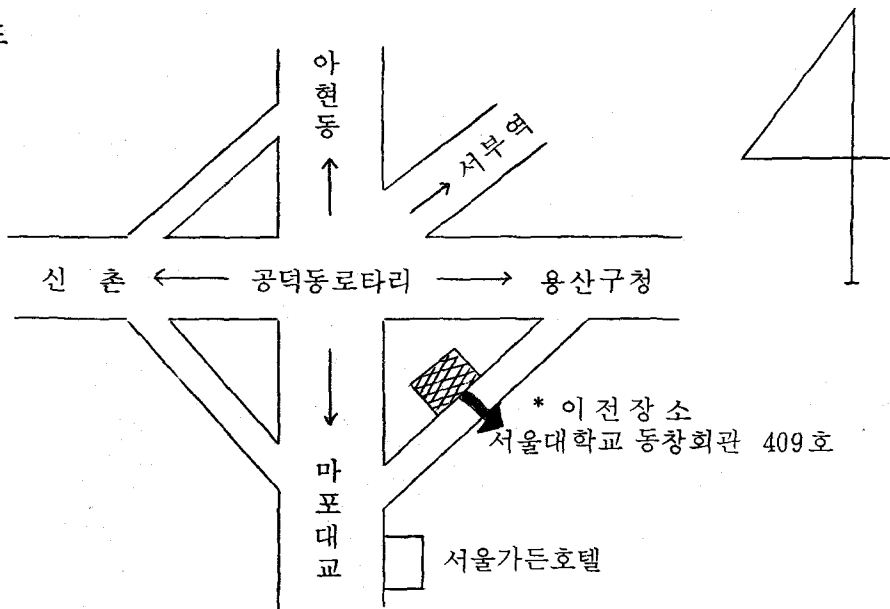
◆ 郵便番號 : 121 - 040

◆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대학교 同窓會館 409 號

◆ 電 話 : 702 - 4301

◆ 약 도



※ 事務室 移轉에 따른 個別 通知는 省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協會費 納入案内>

- 計座番號
- 조 흥 은 행 : 397-1-002092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